완도산 해조류로 해양바이오 국제협력연구사업 박차

완도군,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에 최선 다할 것"

완도군은 지난 7일 해조류를 활용한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인 '유레카(EUREKA)'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레카는 유럽을 중심으로 4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 협의체로 군에서는 기술 파트너인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해양바이오에 대한 연구 및 신기술 획득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공주대학교 김광훈 교수의 '완도산 해조류 톳을 활용한 치매 예방과 치료 연구' 발표와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광훈 교수는 "치매에 대한 톳의 효능이 동물 실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증되었다."며 "톳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해 치매 예방과 초기 환자의 발병 지연을 위한 식이보충제와 식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도군은 프랑스 최대 해양바이오 연구소인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해조류의 기능성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업화 소재를 해양바이오기업에 기술을 이전 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의 공동 참여와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기술 및 기업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는 완도군 주관으로 국내 산학연과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가 참여한 공동연구체를 구성하였고, 세 가지의 연구 과제를 추진 중이다.

연구 과제는 완도산 톳 추출물을 활용한 치매 예방 상용화 연구와 치매 예방 의약품 개발 및 갈조류 기반 천연물 동물 사료 개발이다.

최종 연구 과제에 선정되면 3년간 15억 원 이내 연구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 중 완도군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외 첨단기술 확보로 향후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산업 소재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며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우수 바이오기술을 확보하여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청년 귀농인의 강진 정착기

"귀농인의 집 사업으로 쉽게 정착할 수 있었죠"

강진군이 다양한 귀농 지원정책으로 청년 귀농인들의 안정된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도암면에 정착한 정철(36세) 씨는 강진군의 귀농지원사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정 씨는 2018년 아무 연고도 없는 강진군으로 귀농했다. 그때 머문 곳이 칠량 송촌마을 귀농인의 집이었다.

귀농인의 집 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수리해 예비 귀농인에게 임대해 주는 강진군의 귀농지원 정책이다. 강진, 군동, 칠량 등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대 1년으로 운영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정 씨는 1년간 귀농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귀농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주작목 배움교실을 통해 재배 작물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멘토인 오명석 농가를 소개받아 딸기 재배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교육과 더불어 정착할 곳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정 씨는 현재까지도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멘토인 오명석 강진수출딸기연구회장과 함께 딸기 재배 연구회 및 법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돼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정 씨는 현재 딸기 재배를 시작한 지 2년차로 작년 약 11톤의 딸기를 수확해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재배 첫해이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조기 수확의 쾌거를 이루었고, 올해도 11월부터 조기 수확한 딸기를 출하해 높은 시장성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진군 도암면에 귀농해 정착해 딸기재배를 하고 있는 정철(36세) 씨.

도암면 정착한 정철氏
귀농지원사업 모범사례
주작목 배움교실서 교육
딸기 재배 노하우 전수
현재 2년차 7천만원 소득

정 씨는 "강진으로 귀농한 뒤 좋은 일만 계속되고 있다. 딸기 재배 기술을 익히며 소득을 차츰 향상시켜나가고 있고 안정된 정착기반과 더불어 가족도 늘었다.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다. 귀농인의 집으로 입주하던 날 커다란 두꺼비가 반겨주었는데, 시작부터 좋은 징조였는지 강진에서 생활하며 반가운 소식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현재 우리가 머무르던 귀농인의 집에 다른 젊은 예비 귀농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들 또한 임신을 해서 그곳이 다산의 집이라 불리고 있다. 다복한 가정에 안정된 정착기반까지 꾸릴 수 있는 강진군은 우리 귀농인 모두에게 제2의 고향이자 인생의 2막을 열어가는 참 고마운 곳이다"고 말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 귀농인의 집에서 경사스런 일이 연이어 생긴 것을 축하드린다"며, "특히 젊은 귀농인 정철 씨는 청년 농업인의 성공사례이다. 정철 씨 같은 청년 귀농인이 늘어나고 또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김장 쓰레기 무료로 수거해 드려요"

24일까지 한시적 무상 수거

장흥군은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25일간 한시적으로 김장 쓰레기 '특별무상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은 김장 후 다량으로 발생하는 채소 잔재물을 처리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거한다.

무상으로 수거되는 김장철 쓰레기는 배추, 무, 파 등의 채소를 다듬어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채소 잔재물은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일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장 쓰레기가 아닌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종전과 동일하게 청색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또한, 일반 생활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하지 않고, 특별무상수거기간 이후에는 종전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므로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김장쓰레기 특별무상수거는 군민들의 생활편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노인 일자리사업 구기자 수확

구기자사업단, 올해 16개 마을서 220명 어르신 참여

진도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노인일자리사업 구기자사업단이 한해 동안 재배한 농산물을 수확했다.

시장형 사업단 중 구기자 사업단은 진도특산물인 구기자를 공동으로 재배·수확·판매해 수익과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단으로 올해 16개 마을에서 22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김모 어르신은 "올해에 코로나19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구기자 수확량이 많이 나와서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농가 소득이 줄어 힘든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이 수확한 구기자가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공룡박물관에 워터파크 들어선다

국내 최대규모 해남공룡박물관 야외에 물놀이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해남군은 공룡화석지 내에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 조성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여름 관광 성수기에 맞춰 개장 예정인 워터파크는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30~60m 길이의 공룡슬라이드 2종과 520㎡의 공룡풀장, 바닥분수 및 부속건물을 화석지 내 시설하게 된다.

해남군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공룡화석지 명소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간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군은 여름철 즐길거리 확충으로 물놀이 시설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고정 시설로 워터파크를 운영,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